

• 시론 •

벤처인은 새 역사의 주역

현영석/한남대 경영학 교수

우리 한국인은 역동적이다. 월드컵 거리응원에서, 미군장갑차 여중생 추모집회에서, 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

전세계가 안된다고 비웃었던 70년대에 자동차산업을 이제 연간 300만대를 생산해 1백50만대 수출하는 세계5대강국이 됐다. 또한 90년대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CDMA기술을 세계최초로 상용화해 국내에 3천만대 핸드폰을 공급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통신국가 반열에 들게 한 핵심은 다름 아닌 우리의 역동성이다. 월드컵 거리응원에서 보여주는 우리 국민 모두의 역동성이 월드컵 4강을 만들어 냈고, 우리 한국을 디지털강국·정보통신강국을 만들어 냈다.

디지털 기술은 이번 선거과정 및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0~30대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이들은 핸드폰, 컴퓨터통신, 인터넷신문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제품을 활용해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을 신속하게 양방향으로 주고받았다. 이들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 여론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했다.

현재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1000만 가구, 인터넷 이용자 수 2500만명, PC보급대 수 2500만 대 그리고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31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는 2차 산업혁명에는 늦어서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통치의 수모를 겪어야 했지만 3차 정보산업혁명에서는 결코 늦을 수 없다는 강한 의지로 컴퓨터, 인터넷, 초고속통신망, CDMA이동통신 등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발전과 확산을 위한 정부·기업·연구소 그리고 국민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공헌은 과학기술계와 벤처기업들이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주류를 지역적 편견 없는 20~30대로 이동시키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도구를 만들어낸 우리시대 가장 큰 공신들은 바로 과학기술인들인 것이다.

과학기술과 벤처인들이 더 큰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역사의 주역으로 젊은 세대와 더불어 21세기 우리나라를 보다 살만한 사회로 변혁시키는 주역으로서 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 주요뉴스 •

정보화기금 용자사업 3560억 확정

정보통신부(장관 이상철)가 15일 확정 발표한 2003년도 정보화촉진기금 용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IT설비투자 확대지원사업 560억원(현금지원: 460억원, 임대지원: 100억원)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2000억원(기술담보대출 1000억원 포함) △선도기술개발지원사업 1000억원 등 총 3560억원의 IT설비투자 자금과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 규모 축소에 대해 김기권 산업기술과장은 “시중의 낮은 금리로 차이가 좁혀진데다 용도가 설비투자과 기술 개발 등으로 한정되면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용자 사업이 기업의 투명성과 내실화에 도움이 되므로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내년부터 수시접수제를 도입하고 설비투자 자금의 지원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며 위탁기관으로 한국산업은행 이외에 기업은행을 추가했다.

프리코스닥 유동화펀드 결성총회

중소기업청(청장 이석영)은 지난 달 17일 이석영 청장과 업무집행조합원인 네오플렉스캐피탈 정지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리코스닥 유동화펀드 결성총회를 개최했다.

500억원 규모로 결성된 이 펀드는 중기청이 결성액의 40%인 200억원을 출자한 것을 비롯해 산업은행(200억원), 네오플렉스(50억원), 동양증권(20억원), 미쓰비시상사계열 투자회사인 MC Capital B.V(30억원) 등이 참여했다.

이 조합은 앞으로 투자금액의 70% 이상을 창업투자회사와 창투조합이 보유한 유망벤처기업 주식 매입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벤처캐피탈의 유동성 보장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합결성은 단순히 창투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투자한 자산은 코스닥 외에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벤처투자가 악순환되는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